



운상와의 선원충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②

입실(入室)과 독참(獨參)

“무사독오(無事獨悟, 스승 없이 혼자 깨닫다)”라는 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오로 대성하기란 쉽지 않다. 진북(眞北)을 향해 가도 북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나 나침반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참선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다. 출발점에서 1mm의 오차가 도착지점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만다.

스승과의 독대를 통하여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을 ‘입실독참(入室獨參)’이라고 한다. 방장실로 들어가서(入室) 단독으로 ‘참문(參問, 법을 묻고 가르침을 받는 것)한다’는 뜻인데, 줄여서 ‘입참(入參)’이라고도 한다. 또는 입실(入室) 혹은 독참(獨參)으로 떼어 부르기도 한다.

독참은 청법(聽法)·좌선과 함께 총림 특유의 작불(作佛, 깨닫게 함) 시스템의 하나로서, 기능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행자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방장(住持)이나 조실의 입장에서 각 참선자의 수행상태 및 진도(進度)를 점검 관리할 수 있고, 수행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공부한 것, 수행한 것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내지 확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입실·독참은 수행자가 방장을 면담하여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하두나 공안에 대하여 점검, 관리 받는 것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지도’라고 할 수 있다. 사적(私的)인 일을 가지고 상담, 지도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수행과 직결된 것을 가지고 한다.

일대일의 독대를 통하여 수행자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 조실이나 방장(住持)은 잘 잘못을 철저하게 감별한다. 잘못 참구하고 있으면 호되게 질타하고 잘 참구하고 있으면 힘을 북돋아 주는데, 다그치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한다. 이것을 파주(把住)

“입실이란 곧 스승이 학인(수행자)을 감관(勘辨, 감식, 판단)하는 일이다.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경책하고, 헛되고 지나침을 나무라고, 그 치우침을 깨 버린다. 마치 용광로에 쇠(鐵)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장인이 구슬을 다룰 때 무부(無瑕, 옥과 비슷하나 옥은 아닌 돌)가 모두 제거되는 것과 같다.”

물론 이때 스승(방장)은 감별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몇 마디만 들어도 그 상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명색이 방장일 뿐, 스승이 될 수는 없다. 정법안장을 갖추지 못한 스승, 그런 스승을 선어록에서는 ‘할독자(瞎禿子)’ 혹은 ‘할노독로(瞎老禿奴)’라고 한다. ‘알을 보지 못하는 눈먼 바보’라는 뜻으로 도안(道眼)이 없는 선승을 지칭하는 대명사다.

참선자의 수행 상태는 그 사람의 능력과 바탕, 또는 공부한 햇수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한결같이 없으므로 처방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별 면담 즉 독참이 생기게 된 것인데, 독참으로 말미암아 선불교는 보다 활발하게 발전해 갔으며, 많은 선승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참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입실·독참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근대 100년 사이 청익(淸益) 즉 참선자가 조실을 찾아가서 묻는 경우는 있으나, 정기적인 시스템의 하나로서 입실·독참이 정례화 된 적은 거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임제종이나 조동종은 여전히 독참의 전통을 지켜 오고 있다. 근래 봉암사에서 독참을 부활시키고 있는데,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참을 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는데, 주로 새벽 예불 후와 저녁 공양 후에 하는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아침 공양 후나 점심 공양 후에도 한다. 매일 하던 것이 후대에는 격일(隔日) 또는 5일에 한번(즉 3일·8일·13일·18일·23일·28일)으로 줄어 들었다. 지금 일본 임제종은 매일 독참이 있다.

입실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취수백장정규>에는 “새벽과 저녁을 가리지 아니하며,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며, 일정한 때 없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므로 주지가 틀어 나는 대로 입실, 독참케 했는데, 장소에 구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주로 방장실이었다.

독참이 있는 날에는 하루 전에 입실패(入室牌)를 법당과 승당 또는 중료(衆寮, 대종방, 큰방) 등에 건다. 다음날 입실할 때가 되면 수행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 주지(방장)로부터 수행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 날이므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 곧이어 북소리가 세 번 울리면 입실이 예정되어 있는 참선자들은 모두 방장실 앞으로 집합한다(但聞三下鼓鳴, 即趨入室). 순서대로 마루 등 대기실에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꿇어앉은 채 앞에 있는 작은 종(鐘)을 두 번 친다. 그것을 환중(喚鐘)이라고 하는데, 한 명씩 부르는(喚) 종이라는 뜻이다.

입실과 독참은 선수행 개인지도



변산 월명암의 사선선원. 안거 중 수좌가 조실 스님께 가고 있다.

방장실로 들어가면 수행자는 먼저 방장화상을 향하여 3배를 하고 그대로 서 있다. 방장은 선의(禪椅, 의자)에 앉은 채 수행승을 응시한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범명과 참구하고 있는 하두를 복창하면, 곧 이어 방장의 과격적인 질문이 시작된다. 질문은 상식을 초월한 격외구(格外句)로서 고참이 아닌 초심자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방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독참이 끝나면 참선자는 승당으로 돌아가서 방장의 격외구를 본격적으로 참구한다. 그 말을 알면 화두도 타파되기 때문이다.

독참은 먼저 방장이 질문하고 수행자가 대답하는 형식인데, 이와 같이 진행되는 독참에서 문답할 수 있는 횟수는 많아야 3~4회를 넘지 않는다. 많은 수행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소소한 것을 물을 수도 없지만 더 이상 문답할 것도 없다. 독참은 화두참구를 점검하는 것이지 인생 상담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장화상은 두세 번 문답만으로도 충분히 참선자

방장이 먼저 묻고 수행자가 답 모르면 그 날부터 매달리면 돼

의 상태를 간파한다. 그리고는 처방전을 내린다. 처방전은 여러 가지 형태이다. 임제 선사(臨濟, ?-867)는 주로 ‘할(喝)’을 했고 덕산화상(782-865)은 몽둥이질을 했는데, 천편일률적인 ‘할’과 ‘방’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선자는 어떤 의미의 ‘할’인지 잘 알아차려야 한다. 번뇌 망상과 분별심을 타파하라는 ‘할’도 있고, 잘 참구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할’도 있기 때문이다. 모르면 그날부터 여기에 매달리면 된다.

방장화상의 답은 파주(把住)와 방행(放行) 둘 중에 하나이다. 파주는 질타해서 붙잡아 이끄는 것이고, 방행은 잘 참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인데 주로 파주이다. 방장은 냉엄하게 질타한다. 참선자는 거의 지옥을 다녀 온 것이나 마찬가지로 심경이다. 이렇게 단련시키지 않고는 철을 녹여서 논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답시간은 길어야 4-5분을 넘지 않는다.

이쯤에서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 24권에 실려 있는 대양혜견(大陽慧堅, 송조, 생몰연대 미상)선사가 그의 스승 영천(靈泉, 송조)화상에게 입실하여 깨닫는 장면은 보도록 하겠다.

혜견 선사가 스승 영천화상 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입실(독참)했는데, 스승이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가?” 혜견이 답했다. “승당(僧堂, 선당)에서 옵니다.”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승당 앞의) 노주(露柱)와 합일하지 않는가?” 혜견은 그 말에서 크게 깨달았다(大陽慧堅禪師, 在靈泉, 入室, 靈泉問云, 爾從甚麼處來, 師云, 僧堂裏來, 泉云, 爲甚麼不築着露柱, 師言下省悟)

인용했으므로 부득불 해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독참은 사실 전형적인 선문답의 하나이다. 스승

과 제자 사이의 범거량으로서 핵심은 “그대는 어째서 노주(露柱)와 합일하지 않는고(不築着露柱)?”이다.

노주(露柱)란 ‘감로(甘露)를 받는 기둥(柱)’이라는 말로서 불당이나 법당 앞 양쪽에 서 있는 등근 돌기둥이다. 그 용도는 감로(이슬)를 받기 위하여 그릇을 올려놓는 곳인데, 새벽에 그 이슬을 불전(佛前)에 공양한다. 노주는 선어록이나 선문답에 자주 등장하는데, 돌(石)로 만든 노주는 목계(木鷄, 나무 닭)·석사자(石獅子) 등과 같이 무생물로서, 곧 무심(無心)을 상징한다. ‘무심의 세계와 합일’ 그것이 스승 영천화상의 메시지이다. 무심한 노주(露柱)처럼 번뇌 망상에 좌우되지 않는 경지가 되라는 뜻이다. 혜견선사는 스승의 말에 즉시 깨달았다고 하는데, 한마디에 깨닫는 것, 이것을 기연(機緣, 깨닫게 되는 계기)이라고 한다.

상당범어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에서 결계 때나 해제 때, 또는 법회 때 불단(佛壇) 앞에 있는 법상에 올라가서 행하는 범어가 바로 상당범어이다. 형태는 좀 달라도 상당범어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나, 기타 조차과 만창 그리고 소참·입실·독참 등은 이미 사라져 버린지 오래이다. 그만큼 깨달은 사람이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창학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9@hotmail.net

한국에서는 독참 전통 사라져 봉암사에서 독참 부활 움직임

와 방행(放行)이라고 한다. 파주는 파정(把定)이라고도 하는데, 잘못 가고 있으므로 붙잡아서(把) 좌정시키는 것이고, 방행은 잘 참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놔두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방장은 수행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오판하고 있으면) 예리하게 지적한다. 수행자는 그 지적을 흔쾌하게 받아들여 보완·수정한다. 선불교는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마조·백장·임제 같은 걸세출의 선지식을 배출시켰던 것이다. 곧 선원충림은 부처를 만드는 학교이고, 방장이나 조실은 교장이며, 상당범어 등 설법은 강의이고, 좌선은 실습이다. 그리고 입실과 독참은 개인지도로서 수행자로 하여금 선병(禪病)이나 기타 다른 유사 수행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이다.

입실(入室)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하여 <취수백장정규> 주지장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볼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여래원 원장 해 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4817-0550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이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됨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복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이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원하,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됨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밤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됨(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칙이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어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임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KFA, KETI, EMI, LG, NO.1, ISO 9001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복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시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치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저국건강메트, 오십건조, 오주배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섭취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